

주간 농업·농촌 동향

주요 농정 이슈

채소류 수급 및 가격동향과 대책
친환경안전축산직불금 지원

거시경제 동향

2013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

현장 여론 조사

(KREI 리포터·통신원)
농촌현장 여론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연구 지원 정보

2012년 경지면적 조사(원격탐사기술 도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동향분석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농정 이슈_1

채소류 수급 및 가격동향과 대책

※ 본 자료는 2013년 3월 8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채소류 수급 및 가격동향과 대책」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 가격동향 및 전망

- [가격동향] 한파 등으로 채소류 출하가 부진하였으나, **최근 기온 상승으로**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배추와 양파를 제외한 시금치, 상추, 오이, 호박 등 채소류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

<주요 채소류 가격 동향>

구 분	평년 (A)	전년 (B)	전월 (C)	3월 상승 (D)	등락률(%)		
					평년동기 (D/A)	전년동기 (D/B)	전월동기 (D/C)
배 추 원/포기	2,968	2,904	3,744	3,998	34.7	37.7	6.8
무 원/개	1,277	1,373	1,377	1,298	1.6	-5.5	-5.7
양 파 원/1kg	1,712	1,409	2,455	2,789	62.9	97.9	13.6
상 추 원/100g	665	736	946	644	-3.2	-12.5	-31.9
시금치 원/1kg	4,062	4,730	6,612	3,744	-7.8	-20.8	-43.4
애호박 원/개	1,633	2,027	2,299	1,684	3.1	-16.9	-26.8
오 이 원/10개	11,880	12,199	15,211	11,983	0.9	-1.8	-21.2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 소비자 가격

- [가격전망] 봄철 기온이 평년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채소류 가격하락세는 당분간 지속**
- 그러나 배추와 양파 가격은 봄배추와 햇양파가 출하되기 전까지는 다소 높게 형성될 전망
 - (배추) 현재 출하 중인 겨울배추는 지난해 9월에 심어 다음해 2월까지의 밭에서 수확·출하 → 저장 → 4월까지 출하되는데, 계속된 한파로 작황이 부진하여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저장량도 감소하여 3월~4월 출하량이 지난해 보다 줄어 높은 가격 형성
 - ※ 3월~4월 출하용 저장량 (전·평년) 60천 톤 → (금년p) 40(전·평년비 33%↓)

- 다만, 최근 배추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시설봄배추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4월 중순 이후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되면 가격은 안정세
- (양파) 현재 '12년산 저장양파와 수입양파가 출하되고 있으며, '13년산 햅양파는 한파 등으로 초기 생육이 부진하였으나, 최근 기온이 회복되어 4월 상순부터는 출하

□ 가격안정과 대책

- 정부 비축물량과 농협이 **계약 재배한 물량**을 공급이 부족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공급하여 가격 급등 방지**
 - (배추) 현재 정부와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 3천 톤(정부 2, 농협 1)이 외에 1천 톤을 추가로 확보 → 총 4천 톤의 물량을 4월 상순까지 집중적으로 공급
 - (양파) 의무수입물량 21천 톤을 국내산 저장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도입·공급하고 있으며, 3월 중 도입 완료
 - ※ '13년 TRQ 도입물량 (계획) 21천 톤 → (기 도입량) 9천 톤, 잔량은 '133월한 도입
 - 또한 '13년도 양파 수급불안에 대비하여 TRQ물량을 증량(5만 톤)하고, 도입은 국내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우선, 햅양파 출하 전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2만 톤 수준으로 도입

주요 농정 이슈_2

친환경안전축산직불금 지원

※ 본 자료는 2013년 3월 5일 농림수산물부에서 발표한 「친환경안전축산직불금 지원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 기대」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개요

- [사업목적] 친환경축산 실천 축산농가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오염 발생 등을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 [사업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사업예산] 국고 100억 2,500만 원('12년 지원액: 70억 원)
 - 농특회계(농특세 사업계정)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HACCP 농장지정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지원내용] 친환경인증기준 준수 등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적합농가에 한하여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
- [지급방법] 친환경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 부터 3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

□ 2012년 지급연앙

- [사업예산액] 70억 원(농특회계 민간경상보조)
- [신청내역] 1280호, 112억8,407만7,000원
 - (유기) 25호, 4억3,356만7,000원, (무항생제) 1,257호, 108억5,051만 원
- [사업대상자 선정] 821호, 80억7,885만4,000원
 - (유기) 23호, 4억2,024만5,000원, (무항생제) 737호, 65억7,813만5,000원
- [집행결과] 760호, 69억9,838만 원

□ 2013년 지급계획

- 올해 한우 및 돼지 등 7개 축종을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받아 전국의 친환경축산 실천농가 1,181호에 친환경안전축산직불금으로 100억여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계획
- [지급 대상농가] **1,181개 농장**
 - **한우 714**, 육우 6, 젓소 59, 돼지 80, 산란계 147, 육계 144, 오리 31
- [지급신청 기간] 1차 신청: 5.1 ~ 5.20 / 2차 신청: 11.1 ~ 11.20
- [축종별 지원 단가]

축 종	유 기	무항생제	비 고
한 우	170,000원/마리	65,000원/마리	육우는 한우의 50% 감액 지급
젓소(우유)	유기 50원/L	10원/L	우유 1ℓ는 1.03kg
돼 지	16,000원/마리	6,000원/마리	
산란계(계란)	10원/개	1원/개	
육 계	200원/마리	60원/마리	토종닭은 육계의 30% 증액 지급
오 리	400원/마리	120원/마리	
오리알	20원/마리	2원/마리	

- [지원한도] **농가당 2천만 원/연간**
- [지급기간] **2012.11.1 ~ 2013.10.31**
- [기대효과] 축산농가의 경영안전망 확충과 축산업경쟁력 제고

거시경제 동향

2013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

※ 본 자료는 2013년 3월 4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3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전반적 동향

- **[2013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 107.6(2010년=100)

※ 전월대비 0.3% 상승(전년 동월대비 1.4% ↑)

<연도별 2월 및 월별 소비자물가 동향(2010=100, %)>

구 분	연도별 2월 동향					월별 동향						
	2009	2010	2011	2012	2013	12.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지 수	96.1	99.0	102.9	106.1	107.6	105.7	106.1	106.0	106.2	106.1	106.1	105.9
전 월 비	0.7	0.2	0.7	0.4	0.3	0.5	0.4	-0.1	0.0	0.2	-0.1	-0.2
전년동월비	4.1	3.0	3.9	3.1	1.4	3.4	3.1	2.6	2.5	2.5	2.2	1.5
전년동기비	3.9	3.2	3.7	3.2	1.5	3.4	3.2	3.0	2.9	2.8	2.7	2.5

-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 106.1, 전월대비 0.2% 상승

※ 전년 동월대비 1.3% ↑

- **[식품및에너지제외지수]** 105.5, 전월대비 0.3% 상승

※ 전년 동월대비 1.2% ↑

- **[생활물가지수]** 107.3, 전월대비 0.4% 상승

※ 전년 동월대비 0.8% ↑

- (식품, 110.5) 전월대비 0.5% 상승(전년 동월대비 1.7% ↑)

- (식품이외, 106.0) 전월대비 0.4% 상승(전년 동월대비 0.5% ↑)

- **[신선식품지수]** 120.3, 전월대비 1.8% 상승

※ 전년 동월대비 7.4% ↑

- (신선어개, 111.0) 전월대비 0.7% 상승(전년 동월대비 0.5% ↑)

- (신선채소, 87.8) 전월대비 4.2% 상승(전년 동월대비 25.1% ↑)

- (신선과실, 123.1) 전월대비 0.1% 상승(전년 동월대비 2.0% ↓)

- (기타신선식품, 109.2) 전월대비 0.6% 상승(전년 동월대비 3.4% ↑)

□ 농축수산물 물가동향

○ [농축수산물 물가지수] 115.8, 전월대비 1.0% 상승

※ 전년 동월대비 3.3% ↑

- (농산물, 126.3) 전월대비 1.5% 상승(전년 동월대비 6.7% ↑)
- (축산물, 96.5) 전월대비 0.3% 하락(전년 동월대비 4.1% ↓)
- (수산물, 112.9) 전월대비 0.5% 상승(전년 동월대비 2.0% ↑)

<품목성질별 동향(2010=100, %)>

구 분	품목수	가중치	2012.2월				2013.2월			
			지수	전월비	전년 동월비	전년 동기비 (1~2월)	지수	전월비	전년 동월비	전년 동기비 (1~2월)
총 지 수	481	1000.0	106.1	0.4	3.1	3.2	107.6	0.3	1.4	1.5
농축수산물	71	77.6	112.1	-0.2	0.3	1.9	115.8	1.0	3.3	2.8
농 산 물	51	43.5	118.4	3.5	6.3	5.1	126.3	1.5	6.7	7.7
축 산 물	6	22.1	100.6	-7.9	-12.0	-4.2	96.5	-0.3	-4.1	-7.8
수 산 물	14	12.0	110.7	0.3	1.8	1.7	112.9	0.5	2.0	1.8

<2013년 2월 주요 농축산물 등락품목>

단위: %

구 분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상승 품목	오이(27.6), 양파(18.3), 풋고추(16.2), 피망(24.2), 생화(16.9), 바나나(16.2), 당근(14.3)	배추(182.3), 양파(83.9), 당근(173.8), 파(55.1), 배(35.7), 사과(11.6), 쌀(5.3)
하락 품목	딸기(-20.9), 돼지고기(-3.4), 브로콜리(-20.5), 상추(-15.1)	돼지고기(-14.0), 꿀(-31.3), 고춧가루(-15.8), 딸기(-21.8)

현장 여론 조사
(KRI 리포터-통신원)

농촌현장 여론

□ 농촌연장 여론

○ 농업산재전용보험제도 마련 절실

- 농업은 타 산업에 비하여 모든 제도권에서 취약점이 많음. 물론 부가가치가 적고 산업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농업·농촌의 가장 큰 취약점 중의 하나가 바로 산재보험임. 상당수 외국인 노동자들이 내국인을 대신하여 농업현장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회보험가입에 취약한 이유는 첫째, 사업자등록 없이 경영하는 농업경영체가 대부분이고, 둘째, 사회보험가입 시 보험료가 농업경영주 입장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임. 외국인 고용허가에서도 법인 및 사업등록체가 아닌 경우 사회보험이 의무가입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문제는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근무하다가 상해를 입는 경우 농업경영인들은 대책 없이 어려움에 처하게 됨. - 한 예로 농업경영체에서 한 외국인 근로자가 이번 겨울에 한파로 인해 넘어져 골절수술을 하고, 두 달 간 요양치료를 받아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치료비 및 근로임금, 각종 합의금을 받아준다며 내국인 브로커가 개입하게 되었고, 이 경영체 사장은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가 아닌 내국인 브로커에게 시달리느라 고통을 겪어야 했음. - 이처럼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를 위한 전용산재보험제도가 절실하게 필요함. 산재가 발생한 후 임의 가입도 가능하지만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적지 않기 때문에 가입이 쉽지 않고, 또한 농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험 등급지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농업산재전용보험이 적절할 것이며, 제도적으로 농업인경영체등록제도가 정비된 만큼 그 제도에 연계한 농업산재 전용보험제도 연구가 필요함.<경기 광주, 임광혁>

○ 농업용 전기요금 기준안 검토 필요

- 전기요금 인상이 있을 때마다 농업인을 배려하는 마냥 농업용 전기는 인상제외라고 생색을 내더니, 병요금 체계를 없애고 결국 을요금을 병요금으로 인상하는 꼼수를 부림. 을요금 체계는 축산이나 화훼에

대부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을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하던 농가에게 병요금 적용이란 35%에 가까운 인상이나 마찬가지임. 요금 인상으로 난방비 때문에 힘들어하는 농가가 늘고 있음. 농업용 전기요금에 관해 농업인을 위한 것에 더욱 주안점을 둔 대책이 나왔으면 함.<강원 철원, 이윤희>

○ 정책실효성 제고를 위해 슬레이트지붕 교체 지원면적을 확대해야

- 본체 슬레이트 지붕을 정부에서 교체 지원해주는데, 본체에 딸린 창고나 축사 등 부속 건물의 슬레이트 지붕도 같이 바꿔 주어야 발암물질인 석면 피해로부터 안전할 것임. 하지만 슬레이트 지붕철거 비용면적이 본체만 한정되어 있어 한 집에서 본체만 교체하고 부속 건물은 그대로 놔두면 석면피해 방지에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문임. 본체와 부속건물을 한꺼번에 철거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 면적을 확대해야 함.<전남 순천, 김종근>

○ 지역 보건지소 운동기구 주민에겐 ‘그림의 떡’

- 우리 면지역에는 보건소가 있고 2개의 보건지소가 있는데 그 중에 장평리에 있는 보건지소에는 안마의자를 비롯하여 10여 종류의 운동기구가 있지만 아직 누구도 사용해 본 적 없는 전사용임. 누가 나서서 감히 사용하겠다고 하기 어렵고 저녁시간에는 모두 퇴근하고 없어 사용할 수 없으니 주민을 위한 시설이 그저 그림의 떡이 되고 있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강원 홍천, 변해동>

○ 국민 식생활 연구해 쌀 소비 촉진해야

- “밥 적게 먹는 국민, 한국”이라는 신문보도를 보고 마음이 무척 안타까웠음. 우리 국민들의 식생활이 잘못되었음을 반성해야 할 시점임. 편리한 즉석 가공식품이 다양하게 나와 입맛을 사로잡고 있고, 지나치게 지방분이 많은 육류를 과다하게 먹음으로써 건강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고열량 고지방식품을 섭취하고 많이 활동하지 않아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이어져 현재는 국민 1/3 이상이 과체중이고 생활습관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40%수준으로 추측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실정임. 전국적으로 국민의 식생활을 분석하고 연구·평가하여 검증된 건강 식습관과 쌀 소비를 유도해야만 함.<경기 안성, 임충빈>

○ 영농교육 농한기에 집중 시행해야

-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농교육은 농한기 때 50% 이상 이루어져야 하는데 새해예산에 맞추어 실행하다 보니 농한기 때는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농번기 때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임. 그리고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농촌교육과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농촌교육이 많이 중복되거나 교육비가 똑같은 농촌교육인데 실행하는 기관에 따라 무료인 교육이 있고, 자부담이 있는 교육이 있어 일관성이 없음. 농업인교육 시행처가 일원화되어 농한기에는 다양한 교육을 받고, 농번기에는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함.<경남 거창, 김정오>

○ 산림개발 허가를 엄격화해 산의 가치보존 노력 시급

- 농촌의 곳곳에는 장마가 훑고 간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음. 처음에는 물류창고나 공장, 채석, 골프장 등의 건설을 이유로 허가신청을 했는데 마무리가 잘 되지 못해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명목만 세워 흙이나 돌, 수목을 채취하여 방치하거나 대충 마무리 한 산들이 많음. 산은 분명 한 사람만의 재산은 아닌데,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어 개발하다가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움. 물론 산이 많기에 산을 개발하는 것도 좋으나, 경관이 아름다운 산은 후손을 위해서 보존가치가 크므로 훼손하지 말아야 할 것임. 산의 개발허가 시 엄격히 법으로 정해 심의·고려하여 난개발을 막고 주위 경관과 환경에 조화를 잘 이루도록 지도·감독해야 할 것임.<경기 이천, 김민호>

○ 이장선거 자율성은 보장하되 적절한 관리·감독 필요

- 매년 연초에는 마을마다 이장선거 열기가 뜨겁고, 잡음도 많은 편임. 대체적으로 동네마다 뚜렷한 이장 선거 기준이나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선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됨. 이장이 되면 각종 회의참석 수당 등 연간 약 5백여 만 원의 활동비가 생기기 때문에 이장 선거에 열을 올리게 되는 점도 있을 것임. 이장선거는 주민자율에 의해서 실시하되 행정기관에서 어느 정도 선거지침(후보등록, 투표용지작성, 투표·개표방식 등)을 만들어 그것을 기준으로 선거를 치르게 하고 행정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이 참관한다면 공정한 선거가 될 것이라 생각됨.<충남 부여, 최영호>

○ 농촌지역 운영부실 단체와 조직 정비 필요

- 농촌에는 자연적으로 생겨난 동창회, 향우회와 인위적인 각종 친목회와 취미를 중심으로 한 각종 동아리들이 있음. 이천시에서는 평생학습 차원에서 권장하는 모범적인 동아리 모임이 있는데, 매년 활동실적 심의를 거쳐 우수동아리로 선정되면 그 급수에 따라 활동비(100~250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음. 우수동아리는 지역 축제에 주축이 되어 활동, 그 외 행사에서 그들이 가진 재능과 끼를 발산하여 그 진가를 발휘하기도 함. 각종 취미동아리나 녹색 체험마을 활동, 농촌의 모범적 이익 단체들을 시군차원으로 관리한다면 더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됨.<경기 이천, 김민호>
- 영농을 하면서 품목별 학습조직을 잘 활용하면 매우 유익할 것으로 보임. 문제는 이름만 걸어 두고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 많다는 것임. 조직 취지에 맞게 운용되지 않는 조직은 상급자치단체에서 정기적으로 감사해야 하며, 실적이 미진하거나 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조직을 과감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경기 안성, 임충빈>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 본 자료는 3월 4일~8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

□ 마늘 TRQ 2천여 톤 방출

- aT, **3~4월 마늘 단경기 수급 안정을 위해** 시장접근물량(TRQ)으로 도입 보관 중인 **마늘 2천여 톤 국내시장에 방출**할 계획. 간마늘 2월 평균 상품 kg당 소매가격은 7,592원(전년 동월대비 7% ↑, 평년대비 16% ↑), 설 명절 이후 지속 상승, 226일 상품 kg당 소매가격은 8,185원으로 1월 평균가격대비 13% ↑. 수입 마늘을 도매시장 상장과 농산물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공매를 통해 시장에 공급. **3월, 4월에 각각 1,000톤씩 방출**하여 **마늘 가격안정 ⇒ 물가부담 최소화**
자료 : 원예산업신문(2013.3.6)

□ 식약청, 수입농산물 관능검사 강화

- 식약청, **수입농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 위해 **전국 14곳 관능검사실 설치** 및 운영, **강화된 관능검사*** 기준 시행. 검사결과 선별조치 판정 제품은 불량 농산물을 제거하는 등 보완 후 재검사, 부적합 판정 제품은 수출국으로 반송 및 폐기. 올 상반기까지 5대의 이동형 관능검사 및 X-선 검사 차량을 구비해 현장에서 관능검사가 즉시 가능토록 하고 **콩, 옥수수, 마늘 등 다소비 농·임산물에 대한 검사 기준 강화** 예정
※ 2~3인으로 구성된 관능검사팀이 곰팡이, 오물, 충해, 부패, 이물 등을 검사해 품질불량률에 따라 적합, 선별조치, 부적합으로 판정하는 검사방식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2013.3.4)

□ 미 대두·옥수수 생산량 증가 전망

- aT, **미국 농무성(USDA) 수급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국제 곡물가격 하향 안정세 전망**. ▲USDA 수급 보고서…세계 곡물 수급은 **생산량 0.1% ↑, 기말재고량 0.4% ↑**, 곡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유가**는 세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수요 증가로 **단기적으로 강보합세, 원/달러 환율은 당분간 하락세 지속**. ▲농경연…2월 이후 수확되는 미국 남부 지역의 곡물생산량 증가, 5월 이후 수확되는 북반구 밀 생산량 증가로 **국제 곡물가격 약보합세** 유지, 환율 하락을 고려할 경우 **'13년 24분기 밀, 옥수수, 콩 수입가격은 14분기 대비 각각 24%, 60%, 10.2% 하락** 추정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2013.3.7)

□ 유전자변형 농산물, 세계 증자시장 35% 차지

- 농진청, 3.5일, **2011년 GM 농산물 종자시장의 규모**는 132억 달러로 **전체 종자시장의 35%** 차지, 이 종자를 이용한 **최종 생산물의 규모**는 **1천 600억 달러**로 **해마다 10% 이상 성장**하는 것으로 조사. ▲GM 농산물을 상업적으로 재배하는 국가...미국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 캐나다 등 29개국. ▲**재배 면적**...('96년) 170만ha에서 대량 재배되기 시작 → ('03년) 6천770만ha → ('08년) 1억1천400ha → **(11년) 1억6천만ha로 15년 동안 전 세계 재배면적은 9배 증가**.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GM 작물**...대두로 **전체 GM 재배 면적의 47%** 차지, 옥수수(32%), 면화(15%), 카놀라(5%) 등으로 신선 상태로 소비되는 과채류가 아닌 **기름과 사료, 섬유로 활용**되는 농산물이 주종. ▲**GM 작물 주요 수출국**...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3개국으로 이들 나라가 전 세계 수출량의 80% 차지. ▲**GM 작물 주요 수입국**...EU,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사료 혹은 가공용으로 수입. ▲**우리 나라**...**2012년 784만(26억7천만 달러) GM 농산물 수입**, 식용으로는 옥수수 103만, 대두 88만2천, 사료용 GM 옥수수 수입량은 578만으로 전체 사료용 옥수수 수입량의 98% 차지

< 세계 GM작물재배면적 100배 증가해... >

- 농업생명공학 응용을 위한 국제서비스(ISAAA) 설립자이자 회장인 클라이브 제임스 3.4일 방한
- '차세대 바이오그린 21사업 GM작물실용화사업단'·'크롭라이프코리아' 공동 개최한 세미나에서 「2012년 세계 생명공학작물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
 - '12년 기준 **전 세계 28개국 1,730만 명의 농민이 GM(생명공학)작물 재배**, 이 중 **90%는 개발도상국의 영세농민** 차지
 - 개발도상국은 '12년 처음으로 **전 세계 생명공학작물의 52%**를 재배, **선진국과 비교**해 생명공학작물의 **재배 성장속도가 3배** 빠르고 **면적도 5배** 확대
 - **전 세계 생명공학작물 재배면적은 1억7,000만ha**로 이는 생명공학작물 상업화가 처음 시작된 1996년 170만ha에서 **무려 100배 증가**

자료 : 연합뉴스(2013.3.5)/ 한국농업신문(2013.3.6)

□ 일본, 미국 주도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가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블록 추진 현황

자료: 외교통상부, 국제통화기금(IMF)

구분	참가국	인구	역내 총생산(GDP)	진행상황
한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미국, 호주,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	7억8500만명	26조6038억달러	일본 합류 예정, 한국 참가 가능성 열려 있음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RCEP)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아세안 10개국	34억명	19조7640억달러	상반기 1차협상 착수 예정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한국, 중국, 일본	15억2200만명	14조2839억달러	상반기 1차협상 착수 예정

- ▲**일본**...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아베 신조 일본 총리, **223일 정상회담 직후 일본의 TPP* 참가 가능성을 담은 공동성명 발표** → TPP 참가 선언할 예정. 관세 철폐 예외란 명분을 얻어냈지만, **일본 내 반발·혼란 커**(농업 붕괴 우려). 농림수산성, TPP로 농산물 관세 모두 철폐 및 대책이 없을 경우 농업생산액은 ('09년) 8조 엔 → 4조1000억 엔 감소할 것으로 분석. 이 자료는 TPP 참가를 반대하는 농림수산성이 다른 부처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발표해 논란. **쌀·쇠고기·낙농품·설탕·밀 5개 품목은 현행 관세 유지**, 쌀·밀과 같은 **식량작물은 물론 채소와 과수농가에 막대한 농업보조금 확대 검토**. ▲**한국**...그동안 한·중, 한·중·일 FTA, 아태 주요국이 참가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에 **치중**. 박근혜 정부 가입 가능성 배제 안하며 미국은 한국 참가를 학수고대. 우리가 TPP에 참가하면 농산물 개방 속도는 더욱 가속화. ▲**최대 관건은 쌀**...관세화 유예 마지막 해인 내년에는 주요국과 협상을 통해 쌀 관세를 정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TPP 논의 대상에 쌀도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 내재
 - ※ 회원국 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모두 철폐하자는 초강력 FTA. 2006년 칠레·뉴질랜드·싱가포르·브루나이 4개국이 출범시킨 P4 협정이 모태. 이후 호주·페루·베트남·말레이시아 가세, '10.11월 미국, '12.10월 캐나다 멕시코 참가의사 표시

자료 : 농민신문(2013.3.4)

□ 중국 새정부, 식량안보 강화

- 농협경제연구소, '**중국의 2013년 중앙 1호 문건* 주요내용**' 발표에 따르면, **7개 농정방향을 제시**해 농산물 공급 확대 등 밝혀 **식량안보 강화**. ▲**주요내용**...주요 농산물 공급 확대, 농업 현대화를 위한 물질·기술적 기반 구축, '삼농(농업·농촌·농민)'에 대한 지원과 농업보조금 지급규모 확대, 농촌금융서비스 개선, 농업생산 경영시스템 혁신하고

농민 조직화하는데 이를 위해 토지 경작권을 한층 보호, 농가의 집약 경영 강화, 새로운 형태의 농민합작조직 지원 확대

※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에서 매년 연초에 발표하는 문건으로, 해당 연도 핵심 국정과제와 방향 제시

자료 : 농민신문(2013.3.6)

□ 가락시장 무배추·양배추 아사경매...무엇이 쟁점인가

< 물류 효율성 제고·비용절감 의문 >

- 서울 가락시장, 3월부터 차량에 실린 채 거래되는(차상경매) 무·배추·양배추 등에 대한 ‘하차경매’가 또다시 논란

- 이에 가락시장 내 **도매법인·산지유통인, 하역노조 등이 현실성 없는 시책이라며 반발**

- **도매법인·출하주...“경매공간·하역인력 추가 필요...물류비 증가”**

- **공사...“화물차 시장반출 빨라지고 하역기계화로 농가부담 줄어”**

[하차경매 할 인력·공간 있나]

- 물류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앞으로는 인력 또는 기계로 전량 하차**한 뒤, **팔릿 위에 진열한 상태로 경매**를 진행할 예정

- 도매법인·산지유통인·하역노조 측 입장...현재의 가락시장의 부족한 공간과 하역인력 등을 고려할 때, 하차경매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 차량 단위로 경매되고 있는 무배추 등을 매장 바닥에 내리기 위해서는 **경매장 면적이 지금보다 두 배 이상, 하역인원도 2~3배 필요**

- **하차에 많은 시간 소요** ⇒ 출하를 해도 **당일 경매가 진행되지 못해** 물량이 넘쳐나며 혼란 발생

- 공사측 입장...하차경매를 위해 하역인력이 70~80명 정도 더 필요하지만, **하역노조측에서 단순 일용직 모집**해 해결 방안 검토

[하차경매가 물류비 줄여 줄까]

- 도매법인 및 산지유통인들 입장...**하역기계화율이 3%도 안 되는** 현실 점에서 하차경매가 실시되면 **오히려 물류비만 상승**

- 공사 측 입장...농산물을 싣고 온 화물차 및 선박용 컨테이너 등이 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반출돼 **물류흐름 개선**, 농가들의 운송비 등 **물류비 부담 절감**, 하차경매가 하역기계화를 촉진시켜 **농가들의 하역비 부담을 현재보다 낮춰줄 것**으로 기대

자료 : 농민신문(201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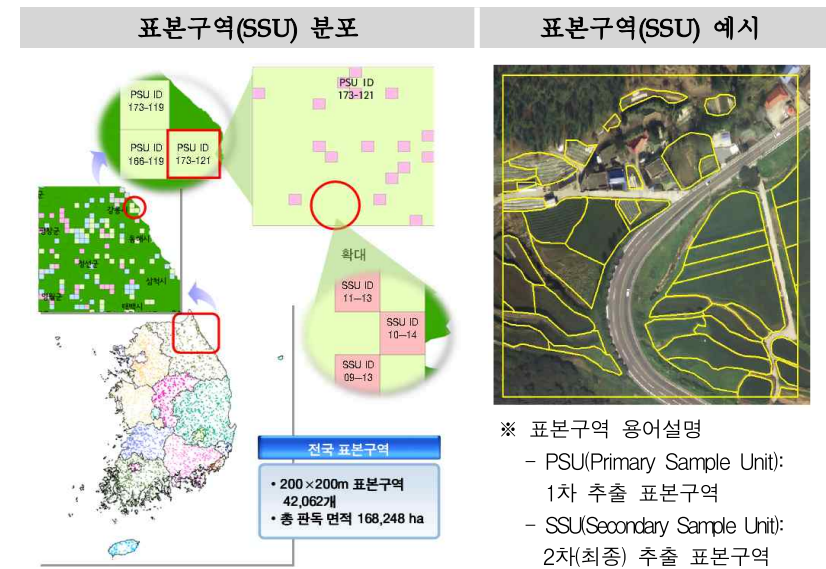
연구 지원 정보

2012년 경지면적 조사(원격탐사기술 도입)

※ 본 자료는 2013년 2월 28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원격탐사 실용화로 통계작성 선진화 도약(2012년 경지면적 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조사대상 및 방법

- [조사대상] 환경부에서 제작한 토지피복지도를 모집단으로 하여 Grid(격자) 형태의 공간표본 추출 틀을 구성한 후 추출한 200m×200m 단위 42,062개소의 표본구역



- [조사방법] **원격탐사(Remote Sensing: RS)*를 활용한 표본구역(SSU)의 위성영상을 관측하여 경지면적 산출**

※ 실제 관찰하고자 하는 목적물에 접근하지 않고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관찰 대상체의 정보를 추출해 내는 기법

- 비표본오차 감소, 능률·정확도 향상

□ 조사결과

○ 2012년도 전국 경지면적: 1,730천ha

- 논 면적 966천ha, 밭 면적 764천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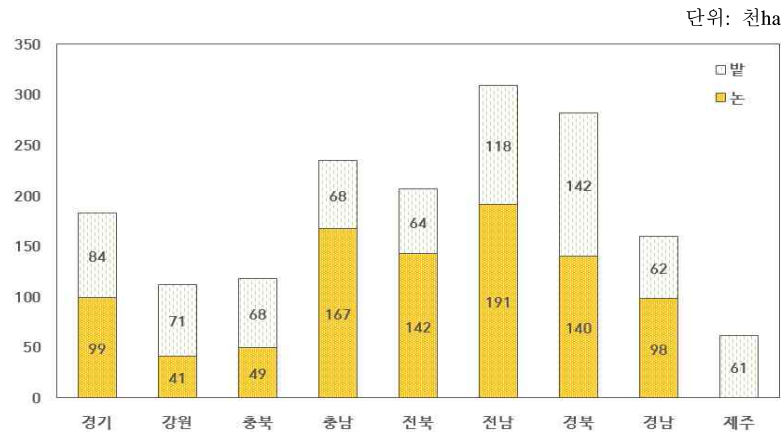
※ 기존 조사 방식: ('10년) 경지면적 1,715천ha(논 984, 밭 731)
('11년) 경지면적 1,698천ha(논 960, 밭 738)

○ [도별 경지면적] 전남이 309천ha로 전체 17.9% 차지하여 가장 넓었고, 경북 282천ha(16.3%), 충남 235천ha(13.6%) 순

- (논 면적) 전남 191천ha로 1위(전국대비 19.7%)

- (밭 면적) 경북 142천ha로 1위(전국대비 18.6%)

<2012년 도별 경지면적>



○ [시·군별 경지면적] 해남군이 35,499ha로 전체 2.1% 차지

- (논 면적) 김제시 23,451ha로 1위(전국대비 2.4%)

- (밭 면적) 제주시 31,533ha로 1위(전국대비 4.1%)

※ 자료 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